

“한국 경제 저점 통과 중” 현대경제研

“민간소비 회복세… 2분기후 경기 전환 가능성”

우리 경제가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면 2·4분기 이후 경기가 전환,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한국경제’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과 궤적에 유사한 산업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5.2%에서 올해 1~2월 평균 3.6%로 하락해, 지난 저점인 2005년 1분기의 3.5%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며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가 1·4분기에 저점을 통과해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수출의 성장 견인력은 감소하고 내수 회복세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게 연구원의 예상이다.

또 연구원은 민간소비가 올해 들어 자산시장 호황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 같은 회복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구매력이 고용확대가

아닌 자산시장 호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설비투자는 2005년 하반기 이후 기계류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선행지표인 설비투자조정 압력을 지난 3·4분기 8%포인트에서 4·4분기 2.8%의 감소세로 반전된다.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부문은 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대체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반짝 회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원은 우려했다.

연구원은 수출이 올해 1·4분기에도 지난해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 수출국들의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전년 동기대비 국내 수출신용

장내도액 증가율은 지난해 3·4분기 31.6%에서 올해 1·4분기 5.7%로 크게 둔화됐고, 수출용 수입액 증가율도 같은 기간 23.4%에서 6.8%로 낮아져 수출둔화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소비에 직접적 자극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확대와 특별 소비세와 저소득층 생필품 부가세 등 소비관련 세제의 한시적 감면 등을 검토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계부채가 가계구매력의 밸류를 잡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 밖에 규제개혁과 투자유인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탄력적 부동산 정책운용을 통한 건설투자의 침체방지, 환율 변동성 완화와 통상마찰 최소화를 통한 수출경기의 급락예방, 대선 정국 상황에서 정책안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재경부의 정책조율기능 강화를 통한 정치적 인 경기순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美 쇠고기 수입 본격 재개

냉동 쇠고기 4.5t 오늘 인천공항 도착 예정

3년5개월만에 … 美 “뼈까지 수입하라” 공세

이르면 이달중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검역을 마치고 3년5개월만에 다시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 수입불량이 ‘시장 테스트’ 수준에 불과해 당장 미국산 쇠고기가 일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이미 수입계약을 마치고 선적을 기다리는 다른 불량도 있어 빠르는 쇠고기의 경우 미국산 본격 수입과 유통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2일 농림부, 미국육류수출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출 검역증을 받은 미국산 냉동 쇠고기 4.5t이 23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쇠고기는 캔자스주 아칸소시티에

작업장을 둔 ‘크리스탈 팜스’사가 수출하고 국내 유통 수입업체 ‘네르프’사가 수입하는 것이다. 광우병 발병으로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시장 진입이 약 3년 5개월만에 재개되는 쉴드이다.

검사를 통과한 쇠고기는 검역원으로부터 수입검역증을 받은 뒤 관세를 물고 통관절차를 마친다. 이후 유통 방법과 일정은 전적으로 해당 수입업체가 결정한다.

미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이 부분을 물고 들어졌고, 결국 이달초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합리적’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 교역을 위한 임시방편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나라 위해…” 재계 총수들이 뭉쳤다

정몽구회장 유럽서 여수엑스포 홍보



대기업들이 우리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국제행사 유치에 물심양면 벌벗고 나섰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X파일 사건,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비자금 사건,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은 혐의의 난 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그동안 대외 활동을 자제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현재 여수에서 실사가 진행 중인 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 뛰어들었다.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정몽구 회장은 이번 주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준공식 및 현대차 체코공장 기공식 참석을 계기로 유럽에서의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선다.

정 회장은 유럽 공장의 준·기공식에 각각 참석하는 로



에어컨 무상점검 서비스 나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전문 서비스 인력 4천여명을 투입, 에어컨 무상 점검 서비스에 나선다. 신청 고객은 출장비·수리비 무상으로 에어컨 점검을 받을 수 있고, 부품 교체 비용에 대해 2만원 할인 혜택도 받는다. 신청기간은 27일 까지로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 전용 전화 1577-7654 또는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ec.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성광주전자 제공

한-EU 주내 FTA 공식 개시 선언

내달 7~11일 서울서 1차 협상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금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 개시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2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EU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내부 승인절차를 마칠 예정이며 우리 정부도 금주 후반에 열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EU와의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공식 결정을 내린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일 한-EU

FTA 협상 개시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부처 통상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23일로 확실시 되는 EU의 승인절차가 예정대로 끝나면 1차 협상은 내달 7~1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 예정”이라며 “1차에는 양허안 제시 등 세부 일정과 협상 방식을 비롯한 기초적인 사항을 논의하면서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도 일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2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수자	당첨자 수
04 05 09 11 23 38	35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451,441,100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2,716,591	27
3 5개 숫자 일치	1,290,662	1,312
4 4개 숫자 일치	50,156	67,524
5 3개 숫자 일치	5,000	1,089,603

팝콘복권 (제52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3조 572,350
2	5억	3조 572,349
3	1천만	1등과 조기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52,565
5	1만	각조 712
6	2천	각조 18
7	1천	각조 6
		각조 2

은행권 상반기 채용 본격화

국민·신한·기업 등 600~700명 뽑아

이번 주부터 상반기 은행권 신입사원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5일께 신입행원 채용 공고를 내고 약 300~400여명을 뽑을 예정이다.

국민은행의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의 17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모집 분야는 개인금융, 기업부문, IT(정보기술) 부문 등이며 서류 전형,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신한은행은 5월 중 채용공고를 내고 신입행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옛 조흥은행과 통합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신입행원을 선발하지 않았으며 올 상반기에도 100명 안팎의 소규모로 채용 계획을 잡았다.

학력 등을 따지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유명한 기업은행은 올 상반기 180여 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23일까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외환은행도 상반기 채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하반기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천만원~3천만원대

중소형 수입차 ‘잘 팔리네’

2천만~3천만원대 중소형 수입차 시장이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체들이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연비가 좋은 중소형 신차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데에 따른 것이다.

22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볼보 C30, S40과 혼다 시빅 1.8,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비 등 올해 들어 국내 시장에 출시된 중소형 수입차들은 최근 대형차 못지않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수입차 시장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월간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3월의 배기량별 현황을 보면 2,001cc~3,000cc 이하급 차량의 증가율이 지난달 대비, 44.4%로 3,000cc 초과 차량의 증가율(24.2%)을 능가했다.

푸조의 크로스오버 디젤인 307SW HDI의 경우 작년 10월 출시때만해도 판매량이 45대에 그쳤으나 3천350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높은 연비(ℓ 당 14.4km)가 부각되면서 올들어 매달 90~100대가 팔리고 있다.

지난달 4일 런칭한 볼보의 C30(3천290만원)은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생소한 해치백 스타일의 3도어임에도 불구하고 20여일 만에 50대가 판매돼 본사에 할당 물량을 100대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휘발유 7개월만에

ℓ 당 1,500원 넘어

휘발유 판매가격이 7개월여만에 ℓ 당 1천500원을 넘어섰다.

22일 한국석유공사는 전국의 주유소 980곳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국내 유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4월16일~20일) 무연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 ℓ 당 1천513.21원으로 전주에 비해 13.28원 올라 10주째 상승세를 이었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1천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지난해 9월 둘째 주의 1천516.39원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천586.70원), 대구(1천503.11원), 인천(1천535.87원), 광주(1천503.95원), 경기(1천531.74원), 충북(1천476.04원), 경북(1천480.99원), 경남(1천500.24원)이 13.72~16.77원 올라 전국 평균보다 큰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밖에 부산(1천526.09원), 울산(1천521.35원), 충남(1천481.94원)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전주보다는 휘발유 판매 가격이 올랐다.

실내 등유와 보일러 등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도 ℓ 당 893.20원과 904.86원으로 오름세를 이었고 경유는 ℓ 당 1천222.26원으로 전주보다 11.04원 상승했다.

/연합뉴스

우미건설 수완지구 ‘린’ 특별 분양



우미건설은 광주 수완지구에 분양중인 ‘우미 린’ 아파트(1천 232가구·조감도)를 특별 분양 중이다.

22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분양에